

차준환 한국 남자 피겨 최초 세계선수권 은메달

296.03점 ‘개인 최고점’

이해인과 남녀 동반 메달

내년 싱글 출전권 2장 확보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준환은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TES) 105.65점, 예술점수(PCS) 90.74점으로 합계 196.39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23일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인 99.64점을 기록한 그는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자신의 최고점을 경신하며 총점 296.03점으로 최종 2위를 기록했다.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작성한 182.87점보다 13.52점, 총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282.38점) 때보다 13.65점이나 더 높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차준환이 처음이다.

올해 대회 전까지 세계선수권에서 남녀를 통틀어 김연아(은퇴)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고, 그가 2013년 대

회에서 우승한 것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메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선 이해인(세화여고)이 여자 싱글 은메달을 거머쥔 데 이어 차준환도 시상대에 오르며 ‘남녀 동반 입상’으로 한국 피겨의 새 역사를 썼다.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는 2021년 대회에서 차준환이 기록한 10위였는데, 그는 2년 만에 자신을 넘어섰다.

차준환은 쇼트 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기를 펼쳤다.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그는 두 개의 쿼드러플 점프를 깔끔하게 성공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쿼드러플 살코에서 수행점수(GOE) 4.16점을 챙겼고, 쿼드러플 토루프에서도 GOE 3.53점을 받았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뚝 트리를 플립에서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을 받았지만, 플라이 카멜 스핀, 스텝 시퀀스를 모두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하며 흐름을 이어갔다.

차준환은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점프로는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와 트리플 악셀, 트리플 러츠-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를 매끄럽게 연결했다.



차준환이 지난 25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린 2023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점프 과제를 모두 소화한 그는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 플라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이상 레벨 4), 코레오 시퀀스(레벨 1)로 연기를 마무리하고는 만족한 듯 활짝 웃었다.

차준환의 선전으로 한국은 다음 시즌 세계선수권 남자 싱글 출전권 2장을 얻었다. ISU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선수 한 명이 출전해 2위 안에 들면 다음 시즌 출전권 2장이 주어진다.

이날 남자 싱글에선 지난해 우승자인 우노 쇼마(일본)가 301.14점으로 2연패를 달성했고, 4회전 반을 도는 쿼드러플 악셀을 앞세운 일리아 말리닌(미국)이 3위(288.44점)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가 2023 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 여고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조대여고, 협회장배핸드볼선수권 준우승

GK 박사랑 우수선수상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가 2023 협회장배 전국중고등선수권대회 여고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조대여고는 지난 24일 경남 고성군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고부 결승에서 일신여고에 28-33으로 지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하지만 골키퍼 박사랑만 3학년이고 필드 플레이어들이 1~2학년으로 나서는 조대여고로서는 전국대회 준우승은 값진 성과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주전 1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급히 포지션을 변경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둔 결실이다.

8개팀이 참가한 여고부에서 조대여고는 대회 첫날인 18일 무안고를 29-18로 이긴 뒤 20일 일신여고에 23-29로 졌다. 하지만 22일 대전체고에 31-20으로 승리한 뒤 23일 경남체고를 34-32로 꺾고 결승에 올랐

다. 준결승 경남체고 전에서는 30-30으로 무승부를 이룬 뒤 7m 던지기에서 4-2로 이겼다.

결승 상대 일신여고는 이번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강팀으로 조별예선에서 한차례 패했던 조대여고가 넘어서는 힘든 상대였다. 김보현(2년)과 윤별(1년)이 각각 7골, 채민화(1년)와 범다빈(2년)이 각각 5골로 활약했고, 골키퍼 박사랑이 19세이브를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했다.

선방쇼를 펼친 박사랑이 대회 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정영 조대여고 코치는 “4강권을 목표로 하고 대회에 나섰는데 선수들이 정말 잘 뛰어서 결승까지 올랐다”면서 “다른 팀에 비해 엔트리가 적고 선수들도 어렵게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3년만의 입상을 거뒀다. 4월 종별대회에서 다시한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도시공사-서울시청

무승부...박조은 MVP

광주도시공사가 26일 SK호크스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24-24(12-14 12-10)로 비겼다.

광주도시공사는 2위(12승 3무 3패·승점 27)를 유지, 1위 삼척시청(14승 1무 3패·

승점 29)을 승점 2점차로 바짝 추격했다.

전반전 초반은 시소게임 양상으로 흘렀다. 전반을 12-14로 마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들어서 김금순의 2분간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였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7분 김지현의 득점으로 23-23을 만들었다. 그러나 상대 우빛나에게 실점하면서 24-2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 20세이브(방어율 47.6%)를 기록한 박조은이 MVP에 선정됐다. /조혜원 기자

광주시청 기보배 6년 만에 태극마크

최미선·안산·이승윤 선발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 기보배(광주시청)가 6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기보배는 지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3년도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 리커브 여자부에서 종합 배점 37.5점, 평균 기록 28.17점으로 종합순위 8위에 올라 남녀 각 8위까지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기보배는 전날 12위에 자리하며 태극마크가 멀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대회 마지막 날 3회 차 기록경기(70m 3발, 5세트)에서 148점을 쏘는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9위 이가현과 배점 37.5점 동점을 이뤘으나 평균기록에서 0.6점 앞서며 6년 만에 국가대표에 복귀했다.

기보배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경기라 생각하고 마지막 한발까지 최선을 다했다. 태극마크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양궁 글랜드슬래머의 꿈을 다시 꾸게 됐다. 남은 순위평가전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산(광주여대)은 3위, 최미선(광주은행)은 4위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광주시청 기보배, 광주남구청 이승윤, 광주여대 안산, 광주은행 최미선(왼쪽부터)이 지난 24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3년도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 태극마크를 확정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안산은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치열한 승부를 앞두고 남은 기간 좋은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선은 “100% 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다소 아쉽다”며 “순위 평가전에서는 100%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자부에선 이승윤(남구청)이 6위로 태극마크를 사수했다.

이승윤은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1차 목

표를 달성했다. 아시안게임 출전이라는 남은 목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긴장을 풀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녀부 1위는 이우석(코오롱·종합배점 64.5점)과 강채영(현대모비스·종합배점 61점)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의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공사 16명은 다음달 3~7일 인천, 17~21일 원주에서 두 차례 순위 평가전을 진행, 1~8위까지 순위를 가린다. 남녀 상위 1~4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최진화 기자

앤더슨 6이닝 1실점 10K·이창진 멀티히트

KIA, NC에 4-3 승리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앤더슨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앤더슨은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3 KBO 리그 NC다이노스와의 시범경기에서 6이닝 동안 23명의 NC타자를 상대로 5피안타 10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앞선 지난 20일 광주 LG전에서도 5⅓이닝 동안 22타자를 상대로 3피안타 1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던 앤더슨은 이날 시범경기 마지막 선발 등판

에 나섰다.

NC타선을 상대로 86개의 공을 던진 앤더슨은 직구(47개)와 커브(11개), 슬라이더(24개), 체인지업(4개) 등 구종들을 고르게 구사하며 정규시즌을 앞둔 점검을 마쳤다. 직구 최고구속은 152km였다. 앤더슨은 1회초 안타와 사구를 허용하면서 2사 1,2루 위기를 맞았으나 후속타자 윤형준을 포수 태그아웃 처리하며 이닝을 마무리했다.

2회는 불안했다. 2회초 안중열과 한석현을 각각 삼진처리하며 손조로운 출발을 알렸으나 후속타자 오태양에게 안타를 허용

했다. 이어진 2사 1루 상황에서는 상대 서호철에게 1루타를 얻어맞았고 박민우에게 1타점 적시 1루타를 내주면서 첫실점했다.

앤더슨은 3회 1사 박석민에게 안타를 내줬으나 윤형준을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박석민의 대주자로 나선 최승민을 태그아웃 처리했다. 4회부터는 효율적인 투구수로 삼자범퇴 처리하며 NC타선을 무력화시켰다. 6회에도 2개의 삼진을 속아내며 깔끔한 투구를 선보인 앤더슨은 전상현과 교체돼 이날 등판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날 KIA는 NC에 4-3로 이겼다. 타선에서는 이창진이 3타수 1득점 2안타로 팀내 타자 가운데 유일하게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조혜원 기자